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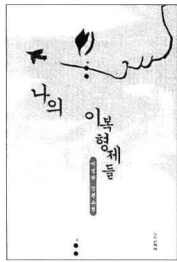
《향량, 산유화로 지다》  
정창권 지음 | 풀빛 | 234쪽 | 값 10,800원  
《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》에서 미시사의 진수와 픽션과 논픽션의 매력을 보여줬던 저자가 향량의 비극을 통해 17세기 서민층의 가족생활사에 주목했다.



《이 그림, 파는 건가요?》  
임창섭 지음 | 들녘 | 291쪽 | 값 15,000원  
‘도대체 그림이 뭐지?’ ‘왜 그림을 사는 거지?’ ‘누가 그림을 팔지?’ ‘어떻게 그림을 사야 하지?’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림을 포함한 예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조목조목 짚어낸다.



《문학적 지성》  
박철화 지음 | 이룸 | 350쪽 | 값 13,000원  
문학평론가 박철화 씨가 낸 네 번째 평론집이다. 미문과 섬세한 언어가 주조를 이루었던 전작과 달리 다소 거칠더라도 세상의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힘찬 언어가 특징이다.



《나의 이복형제들》  
이명랑 지음 | 실천문학사 | 300쪽 | 값 9,000원  
영등포시장 상인들의 멸시와 폭력에 노출된 천덕꾸러기들의 삶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가족주의, 혈연주의에 함몰된 다양한 가치를 외면하는 우리의 문화적 관습을 비틀고 꼬집는다.



《대중 독재 :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》  
임지현·김우우·유음 |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| 책세상 | 588쪽 | 값 25,000원  
나치즘, 파시즘, 스탈린주의, 스페인 프랑코이즘, 프랑스 비시정권, 한국의 박정희 정권 등 독재체제를 연구한 학자 19명의 글을 모은 책으로 ‘대중독재’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다.



《헌법의 풍경》  
김두식 지음 | 교양인 | 312쪽 | 값 12,000원  
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?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이 된 판·검사, 변호사들. 검사 출신 법학자가 그려내는 ‘헌법의 우울한 풍경’ 그리고 그 안에 자라는 희망의 싹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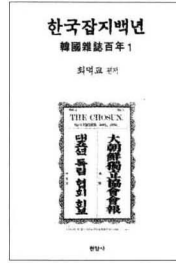
《'아빠'라는 이름의 행복》  
오주협 지음 | 랜덤하우스중앙 | 232쪽 | 값 9,000원  
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초보 아빠를 위하여.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안해 본 저자가 훌륭한 아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.



《그림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》  
박희숙 지음 | 북폴리오 | 261쪽 | 값 12,000원  
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명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화가들의 열정적인 삶과 그들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있다. 120여 컷과 함께 소개된 모델의 안타깝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.



《아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》  
김동선 지음 | 궁리 | 209쪽 | 값 9,000원  
대재앙 고령화의 해법은 없는가? 신문사에서 여성, 가족, 복지 문제 등을 취재해 오던 저자가 일본 아마토마치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옮겼다. 재택개호시스템에 주목한다.



《한국잡지백년》(전3권)  
최덕교 편 | 현암사 | 568쪽 | 각권 값 40,000원  
개화기부터 대한제국, 일제식민지 시기, 8·15 해방 공간을 거쳐 6·25까지 384종의 잡지를 창간호를 중심으로 살폈다. 잡지표지와 인물사진 570여 장 등 흥미로운 자료가 실렸다.